



“서귀포 문화 현장 소통 늘리는 거점으로”

제주문예재단, 어제 서귀포문화예술센터 개소식 열어 정규직 5명 배치 서귀포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등 맡아 “산남 지역 문화 예술 균형 발전 위한 중요한 출발점”

서귀포 지역 문화 예술 거점 공간을 표방한 '서귀포문화예술센터'가 문을 열었다. 제주문예재단(이하 재단)은 10일 오전 서귀포문화예술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열고 정식 출범을 알렸다.

재단에 따르면 센터는 서귀포 지역 예술 현장과의 소통을 늘리고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지난 2월 재단 조직 개편에 따라 정규 인력 5명을 배치하는 등 체계를 찾았다.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가 자리했던 건물(서귀포시 흥중로 33 2층)을 빌려 새롭게 등지를 든 센터는 사무실, 회의실 등 246㎡ 규모다. 앞으로 지역 제한 공모를 통한 서귀포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서귀포 마을 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문화 예술 향

유 프로그램 실시, 중문 꿈꾸는 예술터 운영 등을 맡게 된다. 올해는 기존 재단 사업과 연계해 서귀포 예술인 복지 사무소 운영, 서귀포 문화 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2026 전국(장애인)체전 문화 예술 행사, 청소년들의 연극 분야 이해도를 높이고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꿈의 극단' 운영, 서귀포혁신도시 지역 자원과 연결한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등을 펼친다.

재단은 센터를 통해 서귀포 지역 문화 현장과의 접근성이 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민 문화 예술 향유 프로그램 확대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서귀포 기반 문화 예술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0일 서귀포문화예술센터 개소식에서 헌관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제주문예재단 제공

이날 개소식에서는 서귀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골든브라스앙상블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헌관 제막, 사무실 둘러보기 등이 이어졌다. 서귀포 지역 예술인들과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차담회도 진행됐다.

재단에서는 센터 운영에 앞서 지난해 5월 서귀포 도시에 들어선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내에 서귀포사무소를 두고 서귀포문화예술 TF팀을 가동했다. 이곳에서는 주 1

회 서귀포 예술인 복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왔다.

김석운 재단 이사장은 “서귀포문화예술센터는 서귀포 문화 예술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고 산남 지역 문화 예술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귀포 예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예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향판 <490> 구성:(사)제주어보존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멘: “이제부터 제주시 오라동 양전형시인이 쓴 제주어 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엔 훈 디서 '이 밤, 나 믿음'에 대한 시 이약을 하여보겨..”

- 이 밤, 나 믿음 -

이 밤 나 믿음
이 녀 생각 떠올란
돌초록 빛이 남수다
라고 글을 썼다그네
훈밤중 또시
아니우다 벨초록 빛이 남수다
둘은 저도
벨은 7만이 잇입테다게

벨도 지곡 훈낫
이 녀, 나 모음
태양추록 빛이 남수다
라고 쓰쿠다

<계속>

<자료:양전형 제주어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 도서출판 다중>

제주어 풀이

- *마음: 마음. *이녀: 그대. *생각: 생각.
- *떠올란: 떠올라서. *돌초록: 달처럼. *빛이 남수다: 빛이 나오.
- *썼다그네: 썼다가. *훈밤중: 한밤중. *둘은 저도: 달은 저도.
- *훈낫: 한낫. *쓰쿠다: 쓰셨어요. *태양추록: 태양처럼.
- *벨은 7만이 잇입테다게: 벨은 가만이 있었어요.

비우고 닦은 마음 한지 위 연꽃으로

갤러리 스미다 3월 한 달 강명순 초대전 '연화연가'

“나의 그림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연꽃은 단순한 자연 소재가 아니다. 그것은 수행과 비움의 상징이다.”

3월 한 달 동안 갤러리 스미다(제주시 인다10길 37) 초대전을 펼치고 있는 강명순 작가. 그는 서툰한 번째 개인전이기도 한 초대전의 작가 노트에서 이렇게 썼다.

“연화연가-심안의 꽃”이란 이름을 단 이번 전시에는 초대전에 맞춰 지난해 창작한 작품들이 나왔다. ‘훈란’, ‘연화연가’ 등의 제목 아래 한지에 그린 유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오랜 기간 연꽃을 작품의 모티브로 삼아온 강 작가는 그것들이 피고 지는 순간을 지켜보며 자비, 지혜, 인내 등 삶의 태도를 배운다고 했



강명순의 '연화연가' (2025).

다. 화가인 그에게 연꽃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는 “연잎과 연꽃을 반복적으로 그리며 행위는 동일한 대상을 재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매 순간 달라지는 나의 마음 상태와 생의 깊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한지 위에 불감의 쌓이며 생겨나는 밀도와 마티에르는 연꽃의 형상을 넘어 하나의 정신적 풍경을 이룬다”고 말한다. 제주화랑협회 초대 회장을 지낸 강 작가는 연꽃갤러리를 운영 중이다. 진선희기자

단 이를 만나는 새봄의 난초 향기

한란전시관 춘란 전시회 21~22일 100여 점 출품

단 이를 동안 실내 전시장에서 제주의 봄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서귀포시 상호동에 들어선 제주한란전시관에서 오는 21~22일 진행되는 ‘2026년 새봄맞이 춘란 전시회’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춘란의 관상·관광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행사로 기획됐다. 자생란경영회 제주지부 회원 등 애란인들이 지난 1년간 정성껏 가꾼 춘란 100여 점을 선보인다.

춘란은 한란과 달리 꽃대 하나에 한 송이 꽃이 피는 일경일화(一莖一花)의 특징을 지녔다. 색상과 무늬, 향기가 다양한 난초로 관상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농가 소득 작물로도 경제적 가치가 높다.

전시 기간에는 전문가의 해설로 난초 생태, 재배와 품종별 특징, 분갈이 등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 등을 위한 ‘풍란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사전 예약으로 운영한다. 한란전시관 홈페이지 참고

진선희기자



춘란. 세계유산본부 제공

축
CONGRATULATIONS

취 득

교육학박사

김정선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이뤄낸 박사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상담전문가로서 행복한 인생 제2막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봉권 강승관 고지운 고정석 고준호

축
CONGRATULATIONS

취 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박사 학위

김수미 (배우자 임관훈)
(남녕고18회 졸업)
조부: (故) 김성택 · 조모: 고성화
부: 김경환 · 모: 변순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박사 학위 취득을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가족 일 동

축
CONGRATULATIONS

취 득

제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강상찬

제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창우기업 대표이사 김경희

왕방울 은행나무
성목 판매 (200본)

- 공원 조성용(열매 냄새 없음)
- 수령(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음)
- 재래종 보다 열매는 2배 큼
- 개량종(부채꼴, 대접꼴, 밥통꼴)

문의 : 010-4693-1698